



김기태 감독

# “촌놈들, 집 나오니 졸았나... 간 키워라”



KIA 미야자키 캠프를 가다

과감하고 빠르게 그리고 즐겁게

KIA 타이거즈가 20일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 오쿠라가하마 구장에서 자체 흥백전을 열었다. 9이닝 정규이닝이 아닌 6이닝을 소화하면서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홍팀의 6-0 승리로 끝날 이날 경기는 마치 고교야구의 모습같았다. 공수교대 시간이면 선수들은 전력으로 질주를 해서 그라운드로 올라가고 덕아웃으로 달려들어왔다. 공 하나하나에 나오는 파이팅도 고교 야구 현장 같이 실재없이 이어졌다. 연습경기였지만 선수들의 집중력 있는 플레이로 실제 경기 같은 생동감이 넘쳤다.

관람객이 된 최고참 최희섭은 그런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싱글벙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올 시즌 재활군에 머물면서 2군 선수들의 모습을 많이 지켜본 최희섭에게는 달라진 후배들이 기특하다.

최희섭은 “내가 기분이 좋다. 후배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재미있게 한다. 경기하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 두산과의 연습 경기에서도 달라진 선수들의 질주가 코칭스태프를 웃게 했었다. 이날 사이토 구장으로 원정에 나선 KIA는 쟁쟁한 멤버들로 무장한 두산을 상대로 11-5 대승을 거뒀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두산이 한 수위였지만 KIA의 집중력이 앞섰다.

김기태 감독은 “경기 전 수비 연습을 하는데 상대팀 선수들이 유심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라. 그런데 약속수가 나오고 긴장들을 많이 한 모습이었다. 화가 나기 보다는 웃기도 하고 ‘촌놈들 집나오니’

캠프 자체 흥백전으로 기량 테스트 달라진 선수들 질주 ‘생동감’ 넘쳐 코칭스태프·선수단 분위기 ‘훈훈’

졸았나고 농담을 했었다”고 웃었다.

긴장을 풀어준 수장의 한마디와 전날 받은 특별 휴식에 응답하고 싶다는 선수들의 마음이 더해지면서 KIA는 이날 집중력 있는 경기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KIA 캠프 훈련은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다. 코치들이 맨투맨을 하다가 피 세밀한 스케줄로 선수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연습경기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선수들의 반응은 ‘재미있다’이다.

쉴 틈 없는 그라운드 위의 일정이 끝나면 웃음과 여유가 넘친다.

긴장감 있게 진행된 연습경기과 달리 미팅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김기태 감독은 “과감하게 하라. 간을 키워라”는 말로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수훈 선수를 선발하는 내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코칭스태프 추천을 받은 선수들이 자기가 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 동안 김 감독은 “감독은 상급 안주나, 최종 오더는 내가 승인했으니까 이기는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농담을 하며 선수들을 웃게 했다.

웃음이 넘친 수훈선수 선발 과정 끝에 이호신이 MVP로 선정됐고, 홍팀 투수로 나온 신창호·김지훈, 좌익수 서용주도 수훈선수로 상급을 받았다.

한편 21일에는 KIA 홈 구장에서 두산과 연습경기가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지훈



## ‘잔류’가 먼저...FA ‘집토끼 지키기’

프로야구 각 구단 우섭 협상 시작...KIA, 송은범과 대화 시작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신청 선수들과 소속구단의 우선 협상 기간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고 ‘집토끼’를 잡으려는 구단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역대 최다인 19명이 FA를 신청한 올해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소속구단이 먼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다른 구단과 선수의 협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각 구단의 첫 번째 목표는 타 구단과의 협상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부 FA들을 모두 주저앉히는 것이다. 가장 발걸음이 바쁜 구단은 나란히 5명의 선수가 FA 시장에 나온 SK와 삼성이다.

SK는 올 스토브리그 F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내야수 최정(27)과 협상 기간 첫날인 20일 면담 자리를 마련,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5년 연속 3할 타율과 4차례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린 최정은 역대 가장 많은 선수가 ‘매물’로 나온 올해 FA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최정이 지난해 롯데 강민호가 받은 역대 최고액(4년 75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

망도 나오고 있다. SK는 최정이 핵심적인 프랜차이즈 선수인 만큼 반드시 팀에 잔류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상 기간 첫날부터 발걸음을 서둘렀다.

SK에는 최정 외에도 리그 정상급 외야수인 김강민과 조동화, 투수 이재영, 내야수 나주환 등 FA를 신청한 준적급 선수가 많다. SK는 내부 FA를 모두 잡겠다고 선언하고 이들과도 협상을 서두를 계획이다.

SK처럼 5명이 FA 자격을 승인받아 ‘집토끼 단속’이 시급한 삼성은 같은 날 왼손 불펜투수 권혁과 첫 만남을 열고 협상을 개시한다. 삼성의 FA 신청 선수들도 권혁 외에 오른손 선발 윤성환·배영수, 불펜의 핵 안지만, 만능 내야수 조동찬 등 면면이 화려하다. 특히 윤성환과 안지만 등은 최정과 함께 ‘최대어’로 꼽힌다.

원손 투수 장원준이 FA를 승인받은 롯데, 프랜차이즈 스타인 박용택이 시장에 나온 LG 등도 소속 선수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KIA도 이날 오른손 투수 송은범과 만나 서로 원하는 조건을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학교서 다진 팀워크로 척하면 ~ 압니다”

연세대 출신 투수 고영창·박상욱·김명찬 ‘주목’

눈빛만 봐도 통하는 ‘독수리 트리오’가 마운드에 오른다.

KIA의 이번 마무리 캠프에 주어진 중요한 숙제 중 하나는 마운드의 보물찾기다. 고민 많은 마운드에 고영창·박상욱·김명찬, 연세대 트리오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대학시절 함께 야구를 한 선 후배 사이다. ‘4학년’ 고영창이 2013년 가장 먼저 KIA 유니폼을 입었고, ‘3학년’ 박상욱은 올 시즌 타이거즈 원년이 됐다. ‘2학년’ 김명찬은 2015 드래프트에서 KIA 입단을 앞두고 있다.

연세대 마운드를 책임졌던 세 선수가 3년 만에 다시 같은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프로에 뛰어든 고영창과 박상욱은 아직 1군 경험이 없다. 고영창은 미완의 대기였고 박상욱은 올 시즌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재활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마무리 캠프에 앞서 다녀온 미국 교육리그가 두 사람을 부쩍 자라게 하면서 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영창은 “교육리그에서 좋은 경험도 하고 자신감을 얻어왔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전체적인 피칭이 좋아진 것 같다. 공에 힘도 있고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변화구에도 자신감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상욱·고영창·김명찬

박상욱은 “이렇게 훈련을 하고 공을 던지는 자체가 행복하다. 교육리그에 가서 커브를 배웠는데 각이 더 커졌다. 서클 체인지업도 배웠다. 캠프에서도 허체를 쓰면서 던지게 되면서 많이 좋아졌다. 열심히 해서 꼭 한자리 차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잘 아는 이들과의 동행과 경쟁도 이들을 더 자라게 한다. 큰 키(187cm)에서 내리쬐는 직구가 주무기인 막내 김명찬은 “같이 지내던 형들이 있어서 더 편하고, 잘 쟁겨준다”며 “모든 선수들의 목표는 1군에서 뛰는 것이다. 열심히 해서 스프링 캠프에도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미야자키=김여울기자 wool@